

# 기독교 박해지수

##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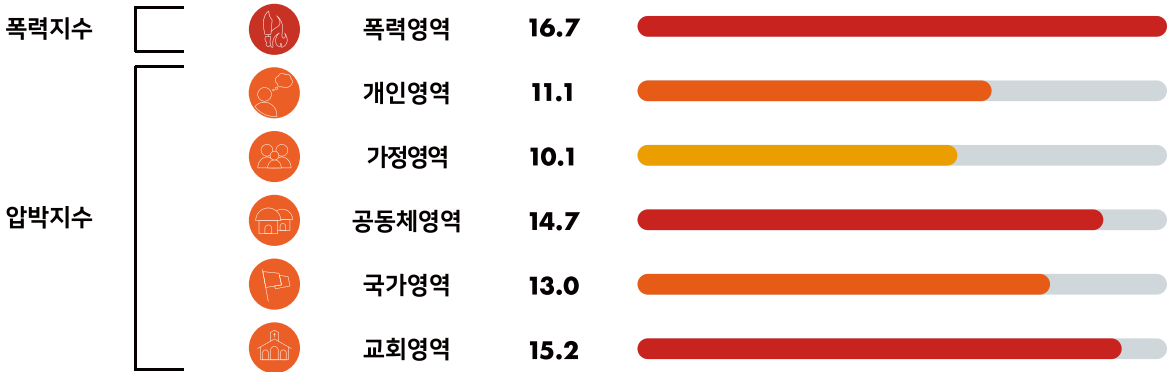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15위

### 말리 (MALI)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말리의 기독교 공동체는 심화되고 다층적인 박해에 직면해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지역이 사실상 이들에게 거주 불가능한 곳이 되고 있다. 자마아트 나스르 알이슬람 왈무슬리민(Jama'at Nasr al-Islam wal-Muslimin, JNIM)과 대사하라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n the Greater Sahara, ISGS) 같은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북부를 넘어 말리 중부와 남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 납치, 교회 방화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예배자들은 특히 취약하며, 종종 서구 영향력의 대리인으로 비난받는다. 이러한 위협은 이슬람주의 무장세력, 조직범죄, 구조적인 부패가 서로 결합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하디스트들은 밀수 경로, 불법 채굴, 후견 네트워크를 악용해 무법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곳에서 특히 농촌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노출된 채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고 있다. 군부 통치하에서 국가의 억압도 더욱 심해졌다.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은 감시, 협박, 자의적 구금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 공간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더 큰 위협에 놓여 있다. 이들은 배교자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극단주의자들의 표적 공격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 권위와 법적 보호가 약화되면서 이들이 이제 더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말리 (MALI)

## 국가 정보

지도자 : 아시미 고이타 대통령(임시)

인구 : 24,759,000명

기독교인 수 : 867,000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군부 통치)



© Alamy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867,000	3.5
무슬림	21,684,000	87.6
민속종교	2,175,000	8.8
기타	33,000	0.1
	<b>합계</b>	<b>100%</b>

출처<sup>2</sup>

말리는 한때 서아프리카에서 종교적 관용과 민주주의적 열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권위주의 통치, 지하디스트 폭력, 그리고 심화되는 사회 분열에 휩싸여 있다. 1991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과 수피 이슬람의 완화적 존재는 한때 다양한 종교 공동체 사이의 공존을 촉진했다. 그러나 2012년 투아레그 반란과 그에 뒤이은 군사 쿠데타는 전환점이 되었다. 말리 북부는 곧 지하디스트 단체들의 통제 아래로 들어갔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와 그 연계 세력은 취약한 통치 구조와 국경을 넘는 불안정을 악용해 샤리아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요했다. 이 지역들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프랑스군의 철수와 2023년 말리 정부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 철수 요청은 남아 있던 외부 안보의 마지막 축마저 해체했다. 그 자리를 대신해 러시아와 연계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현재는 아프리카 군단으로 대체되거나 또는 재브랜딩되면서, 활동을 확대해 왔다. 이들은 안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면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종교적 소수자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더욱 격화되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수립된 아시미 고이타 대령의 과도 군사정부 아래에서 국가는 영토 통제 회복이나 민간인 보호에 실패했다. 2023년 헌법 국민투표와 2024년까지 민정 이양을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말리는 역내 안보 협의체인 G5 사헬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에서 모두 탈퇴하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왔다. 이는 외교 관계와 역내 분쟁 관리 메커니즘을 더욱 약화시켰다.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지하디스트의 영향을 받는 농촌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상황은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납치, 처형, 또는 강제 이주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와 신앙 기반 학교들은 폐쇄되었고, 기독교인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도록 압박받고 있다. 반면 바마코와 같은 도시 중심지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감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말리에서 활동하는 이슬

<sup>1</sup>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sup>2</sup>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람주의 무장단체들을 “특별우려단체”로 지목했다. 이들 단체는 온건한 무슬림들과 전통 종교 실천자들도 표적으로 삼으며, 다원주의와 공존에 적대적인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말리의 위기는 오랜 문제들, 취약한 국가 구조, 그리고 세계적 변화에서 비롯된다. 지하디스트 단체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책임 추궁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정치적 동맹도 계속 바뀌는 가운데, 말리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는 위협의 증대, 공격 삶에서의 축출,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말리의 기독교인 대다수는 바마코, 시카소, 카예스 주변의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점차 북부와 중부 말리에서 확산되는 지하디스트 영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팀북투, 가오, 키달과 같은 북부 지역에서는 무장한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남하하면서, 폭력, 협박, 그리고 종교적 정화의 위협을 기독교 인구 중심지에 더욱 가까이 가져오고 있다. 모프티와 세구와 같은 중부 지역도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교회에 대한 공격, 목회자 납치, 기독교 기관 폐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해외 출신 기독교인들은 말리에서 고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몸값을 요구하거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하디스트 단체들에 의해 납치될 위험에 놓여 있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말리인 가운데 3% 미만이 기독교인이며, 이들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을 따른다. 남부 공동체들은 비교적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폭력적인 이슬람주의 단체들에 의한 폭력과 납치의 위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 기독교 개종자

주로 보조족과 도곤족 가운데 있는 이슬람 개종자들은 지하디스트 세력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주로 남부에 있는 은사주의 및 오순절 계열 공동체들은 전도 활동과 표현이 풍부한 예배 방식 때문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의 높은 가시성은 특히 급진적 이념이 세력을 넓혀 가는 지역에서 사회적 반발과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이슬람주의적 억압

2012년 온건한 이슬람 지도력의 붕괴는 급진적 이슬람주의 분파들이 특히 말리 북부에서 엄격한 샤리아법을 강요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었다. 교회들은 파괴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쫓겨났으며, 종교 상징물들은 훼손되었다. 세계적 지하디스트 및 와하비 이념의 영향을 받은 이 세력들은 계속해서 말리 중부와 남부로 확장하고 있다. 복음주의 및 가톨릭 공동체들은 이제 괴롭힘, 집회 제한, 지도자들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확산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면서 극단주의가 번성하도록 방지되었다.

###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말리의 광범위한 무통치 지역과 허술한 국경은 지하디즘과 조직범죄가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처음에는 이념에 의해 움직이던 무장단체들이 이제는 마약, 무기, 인신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과거의 투아레그 전사들과 지하디스트 조직들은 불법 거래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는 이념적 적대세력이자 범죄 통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이중으로 표적이 되는 회색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보안군 내부의 부패는 보호를 더욱 약화시키고 사법 실현도 가로막고 있다.

### 씨족 억압

아프리카 전통종교가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씨족 구조가 종종 종교와 조상 권위를 결합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무슬림들은 공동체 정체성을 배신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로들은 사회적 배제, 구타, 또는 강제 이주

로 대응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권력 구조는 처벌받지 않은 채 순응을 강요하고 있다.

###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2021년 쿠데타 이후 말리의 군부 통치자들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특히 외국 네트워크나

인권 활동과 연계된 기독교 단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여겨지고 있다. 감시는 강화되었고, 법적 권리 옹호는 억제되고 있다. 정권의 안보가 소수자의 권리보다 우선되면서, 보호 요청은 종종 무시되거나 체제 전복적 행위로 취급된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재확산된 공격은 여성 기독교인들에게 납치와 강제결혼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여성 개종자들은 괴롭힘, 위협, 성적 학대, 신체적 폭력, 심지어 살해에까지 가장 취약하다. 미혼 개종자들은 강제로 결혼당하고, 기혼 개종자들은 강제로 이혼당하며, 자녀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가족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 또한 지원의 부재로 인해 취약성을 더욱 높인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이슬람식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오는 심리적 트라우마는 상당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가정과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자녀 양육권 박탈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심리적
- 폭력 - 성적

### **남성**

기독교인 남성들은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으로부터 살해 위협과 폭력적인 신체 공격을 당하고 있다. 더 외딴 지역에 있는 이들은 폭력 단체들, 특히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납치, 살해, 그리고 강제 징집의 위협에 처해 있다. 기독교인 소년들은 보호를 위해 부모와 떨어져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 기독교인 가정과

사업체를 겨냥한 공격은 가족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은 사회적 배제나 일자리 또는 교육 기회의 축소를 통해 압박받고 있다. 기혼 개종자들은 아내와 강제로 이혼당할 수도 있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강제이혼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폭력 - 죽음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심리적



##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15	81
2025	14	80
2024	14	79
2023	17	76
2022	24	70

81점을 받은 말리는 월드 와치 리스트 2026에서 15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월드 와치 리스트 2025의 80점에서 1점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상승은 폭력 항목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바마코 외부의 기독교인들은 협박, 강제 이주, 갈취,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 등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마아트 누스라트 알이슬람 왈무슬리민과 대사하라 이슬람국가라는 두 주요 이슬람주의 무장 네트워크가 이 구도를 지배하며, 엄격한

종교적 통제를 강요하고 분쟁 지역 전역에서 기독교인의 존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안사르 딘과 같은 초기 분파들도 그들의 이념적 유산과 더 광범위한 반란 형성에서 수행한 역할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현지 조사자들에 따르면, 2025년에 말리 중부와 북부 전역에서 극단주의 단체들의 무장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다. 공격은 소규모 마을들에서 발생했으며,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버리거나 반군 활동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 무장단체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여, 특히 반디아가라, 코로, 방카스, 모프티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말리 중부 전역에서 최소 100개의 교회, 기독교 학교, 그리고 공동체 재산을 공격하고 파괴했다. 예배 공간들은 불태워지거나 약탈당했으며, 또는 압수되었고, 그 결과 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처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 현지 보고에 따르면, 기독교인 청년들과 여성들은 특히 방카스, 반디아가라, 가오에서 야간 습격과 마을 공격 중 납치의 표적이 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납치된 기독교인 수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강간 및/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수
2026	100*	15	10*	26
2025	100*	47	53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 개인 영역

말리의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개인 영역에서 심각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개종은 가족과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며, 그 결과 정서적 학대, 추방, 또는 폭력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북부에서는 지하디스트의 통제 아래에서 사적인 기도나 기독교 자료를 소지하는 것조차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개종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 한다. 국가 통제 지역에서도 가족과 공동체의 감시는 여전히 종교적 순응을 강요하고 있다.

## 가정 영역

극단주의 이념은 가정 구조를 재편해 왔다. 기독교 학교들은 폐쇄되거나 마드라사로 전환되는 표적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 교사들은 위협을 받거나 해고에 직면하고, 아동들은 무장세력이 주도하는 종교 교육을 강요받을 수 있다. 개종자들은 종종 친척들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으며, 이는 고립이나 학대로 이어진다. 가족의 명예는 가정 내에서 종교적 강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지역사회 영역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북부를 넘어 점점 커지고 있다. 말리 중부에서는 설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들은 파괴되고, 신자들은 감시를 받으며, 기독교인 여성들은 납치나 강제 결혼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고용, 안전 보장, 사회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

## 국가 영역

말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무장세력은 국가 권위를 거부하고 병행적인 이슬람 통치를 강요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에서도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개종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구호 활동가들은 납치, 갈취, 또는 처형에 취약하다.

## 교회 영역

무장세력이 장악한 지역의 교회들은 파괴되거나 강제로 폐쇄되고 있다. 재건 노력도 차단되고 있다. 서방 비정부기구나 외국 군대와와의 어떤 연관성도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된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공개적인 예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말리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말리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개종 사실이 드러나거나 단지 의심만 받아도 즉시 살해된다 (ICCP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극단주의 단체들의 표적이 되어 살해된다 (ICCP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표적화의 대상이 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슬람에서의 개종을 철회하도록 고문과 압박을 당한다 (ICCPR 제7조 및 제18조)
-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신의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개종 권유 활동을 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 말리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기독교인들 외에도, 말리의 다른 종교적 소수자들에는 토착 신앙 체계의 신봉자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앙들은 역사적으로 이슬람과 공존해 왔지만, 무장 이슬람의 부상은 그러한 공존을 위협해 왔다. 현지 시아파도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 오픈도어의 말리 사역

오픈도어는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에 의해 탈취된 투아레그 반란 이후인 2013년부터 말리에서 사역해 왔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박해 대응 및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 강화
- 경제적 역량 강화



###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